

우리사회 어디로 가나

요즘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위와 파업을 보면 이렇고도 나라가 온당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다. 근자에 공직사회의 연금법 개정 반대, 민주노총의 공권력 규탄 가두시위, 한국노총의 주 40시간 5일 근무제 쟁취 총파업이 있었고, 롯데호텔은 파업이 계속됐다. 그리고 건국 이래 초유의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금융구조조의 파업이 있었으니 말이다. 이들 파업이 가까스로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파업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집단 이기 퇴파와 시위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참전단체 연합회의 임원들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 참전군인 보상 확대를 요구한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폐업이나 금융파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 먼저 있어야 민주화도 무엇이



신준식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십년을 참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갈등 현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가. 그 중요 요인은 정치권의 말바꾸기와 일시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은 데에 있다. 정치적 정책의 기분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또 근시안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누구도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불신만 쌓여있는 상태에서 사회통합과 조정기능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정책 공정성 우선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민적 불신이 깊은 현실에서 공식적 통제보다는 비공식적 통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힘있는 지도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범적 자세에서 국가의 정책은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無無罪"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피와 술수가 개입되고 정략적이고 당락적인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솔직하고 타산적으로 봐야 한다. 이와 정책이라면 당장에는 몰라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선수가 있고 정당이 있다. 정책은 더욱 그렇다. 국가 정책은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5세 노령인구 7.1% 한국도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7월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7.1%(337만 1000명)로 높아졌다. 또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증가했다. 97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지난 71년 조사 때에 비해 남자는 11.6년,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 그러나 출산율은 감소해 가입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수가 70년 4.5명에서 98년 1.48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젊은 노동력 인구도 감소해 15~29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가 올해 총인구의 24.3%에서 2020년 19.5%, 2030년에는 17.7%로 줄어들 전망이다.

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계약과 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혐의이혼 중에는 총통이혼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편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혼수가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20·30대 부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관경>에 이런 대화가 있다. "어떤 법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것이며, 어떠한 법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까?"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한 것이라 하고, 안 계실 때를 가장 가난한 것이라 한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낱이며 안 계실 때는 자녀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나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연히 사회도 무너진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맞지 않는 상대에게 희생은 강요하며 사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내와 노력도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깨뜨리는 것은 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육방예경> <이합경> <육야경> 등 여러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새삼 아쉽게 느껴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이혼소송 하루 113쌍 황혼-총통이혼 급증

법원행정처 '연감' 발표

이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70대 노인에서부터 20·30대 젊은층까지 이혼소송을 내는 계층의 연령별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더이상 못참겠다'는 권리주장형에서부터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합의형, 또 '정말 이렇거나? 그래 헤어지자'는 식의 총통형에 이르기까지, 법원행정처가 11일 내놓은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확인사건은 12만6천5백건이었고, 이혼소송 사건은 4만1천55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루 평균 346쌍이 쌍방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갈라졌고, 113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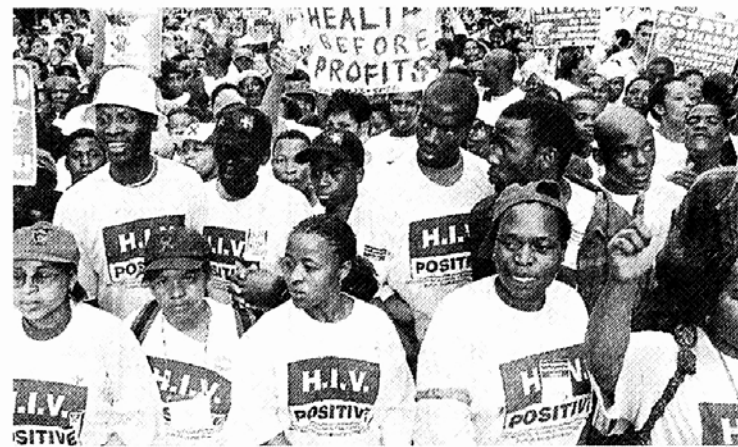
할조정 신청을 법원에 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이달초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그동안 이러한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더이상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여성이 10년 전에 비해 21.2% 높아진 64.2%에 달하는 등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맥을 잇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이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은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혐의이혼도 크게 늘었다. 10년전 4만여 건에 불과하던 혐의이혼 건수가 12만 여건이나 된다. 복잡한 재판이혼과는 달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된다는 이

한국 제왕절개율 43% '세계 최고'

우리나라 산모의 43%가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를 우리의 출산문화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같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의 4배가 넘고, 세계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제왕절개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산모들의 그릇된 인식과 병원들이 이를 권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모나 배우자들은 자연분만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기보다는 미용이나 원하는 날짜에 분만하기 위해 수술을 요구하고, 병원측도 정상분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진통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출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또 수술은 산모나 태아가 자연분만을 하기에 위험이 따를 때 긴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 미용이나 택일을 위한 수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아합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와 구치라존자의 대화를 보자. "무엇이 얁(謙)이라 말할까?" "사물과 사리를 분별하고 법을 분별하는 것을 얁이라 한다." "지혜와 얁은 하나입니까? 별개입니까?" "지혜와 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제왕절개 분만은 마취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산모의 건강회복이나 안전 분만 측면에서도 자연분만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에이즈 치료약 값 내려라"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국가의 경우 성인 4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5, 6개의 초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사 이익을 위해 후진국 에이즈 환자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치료약을 유통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제13회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9일 에이즈 치료약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을 벌였다.

"일상이 지겹다" 중학생 2명 한강투신

일상이 지겹다고 지난 9일 중학생 2명이 한강에 투신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일이다. 속된 말로 얼마 살지도 않은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잡아합경>에 "성내는 마음을 죽이면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은 악의 뿌리이니 그

것을 죽이는 이를 나는 칭찬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마음의 악'을 뿌리뽑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 모두에게 또다른 가르침을 준 사건이다.

앞으로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 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7일 밝힌 환경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담은 간단하다. 희귀 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정부가 이런 교육책을 내놓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동물을 '보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그릇된 '뽕보신' 문화는 더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면 동물이든 벌레든 뭐든지 잡아먹는 끝없고 뒤떨린 욕망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다.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하철'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승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지털도 내용이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담아 절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해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왕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역. 김홍근 번역 /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제열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연 스님 번역 /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300쪽 /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 B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엔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상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선상선하유아독존' 김홍서 지음 / B6 변형 182쪽 /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